

# “제가 결혼한다구요? 오해예요”

## 배우 임수정 동명인 해프닝

tvN 월화극 ‘또 오해영’이 동명인 여성들의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인기가 높았는데 18일 연예계에서도 동명인으로 옷차림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유명 배우 임수정(37·사진)이 오는 28일 동갑내기 치과의사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다. 임수정은 공개적으로 연애 중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깜짝 결혼소식은 많은 놀라움을 안겨줬다.

그러나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임수정의 소속사는 물론이고 임수정 본인도 “천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심지어 임수정은 “제가 누구랑 결혼한다구요?”라고 되물기까지 했다.

사건의 전말은 오후 들어 밝혀졌다. 본명이 임수정인, 34세의 무명 가수 시현이 오는 21일 치과의사와 결혼하는 게 ‘실감하게’ 잘못 보도된 것이다. 시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드라마 ‘또 오해영’은 이름은 같지만, 외모와 성격, 성격 등에서 차이를 보인 두 오해영의 ‘악연’이 10여 년 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다시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을 코믹 터치로 그린 작품이다.

특히 ‘평범한’ 오해영(서현진 분)이 ‘잡남’ 오해영(전혜빈) 때문에 겪었던 많은 ‘피해 사례’들을 다루는데, 수많은 동명인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에피소드는 현실에 단단하게 발을 붙인 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누구에게나 이름은 중요하지만, 특히 인지도와 인기가 생명인 연예계에서는 이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본명을 숨긴 채 예명을 취하는 경우

가 다반사이고, 아예 개명하기도 한다.

연예계에는 김지영, 최윤영, 김현주, 주진모, 심해진, 이민호, 정경호, 정유미, 김수현, 김민희, 김정민, 이지훈, 이민우, 이현우, 김태우, 박준형, 황정민, 유리, 이은, 김영철, 최정원, 장운정, 한혜진, 김효진, 김성수, 박선영, 이승환 등 많은 동명인 스타가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배우 임수정과 혼동된 ‘가수 임수정’도 두 명이 있다. 5월의 신부로 밝힌 가수 임수정이 34세이고, 그 외에 7080 가수인 53세의 임수정이 있다.

아이돌의 세계에서도 같은 이름이 종종 충돌한다. 사이니의 중현과 씨엔블루의 중현, 비투비의 민혁과 씨엔블루의 민혁이 대표적이다. 이미지 때문에 예명을 쓰기도 하지만, 동명인 ‘선배’가 신경 쓰여 예명을 쓰는 경우도 많다.

배우 한가인의 본명은 김현주이고 김수로의 본명은 김상중이다. 한재영은 김지영, 한지혜는 이지혜, 박시연은 박미선이 본명이다.

또 주지훈은 주영훈, 아이바는 박은혜, 김민은 김민정, 김지우는 김정은, 슈퍼주니어 은혁은 이혁재, 슈퍼주니어 이특은 박정수가 각각 원래 자신의 이름이다.

또 클라라와 슈퍼주니어 성민의 본명은 동명의 인기 배우와 같은 이상민이다.

같은 이름의 연예인이 있음에도 개명을 한 경우도 있다. 1997년 데뷔한 배우 김민선은 어릴 적 이름이 ‘규리’였다면서 한창 활동하던 지난 2009년 ‘김규리’로 개명했다.

그에 앞서 1994년 데뷔한 같은 이름의 배우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동안 혼선이 왔다. 심지어 둘은 1979년 동갑내기다. /연합뉴스



## 유쾌·통쾌 ‘조들호’ 시청률 15% 돌파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머물던 월화극 시청률에 변화가 일어났다. 박신양의 힘이다. KBS 2TV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17일 시청률 15%를 넘어섰다.

1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송승민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16회는 전국 15.3%, 수도권 16.5%, 서울 17.3%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경쟁작인 SBS TV ‘대박’과 MBC TV ‘몬스터’를 5%포인트 이상 따돌린 성적이다.

10% 안팎을 오가던 월화극 시청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대박’과 ‘몬스터’는 각각 전국 시청률 9.6%와 9.5%를 기록하며 여전히 저수위에서 박빙의 대결을 펼쳤다.

타이틀 물을 맡은 박신양의 환란한 드라마와 원맨쇼로 설명되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종영까지 4부가 남은 상황에서 조들호가 본격적인 반격을 전개하며 시련함을 안겨주고 있다.

16회에서는 조들호와 그의 사람들이 악의 축인 정금모(정원중 분) 회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과정이 경쾌하게 펼쳐졌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주간 월화극 1위는 이어갔지만, 박신양의 원맨쇼만으로는 힘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10~12%의 시청률에 머물러 종종 KBS 1TV ‘가요무대’에 월요일 밤 시청률 왕좌를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15회에서 전국 14.1%, 수도권 15.3%를 기록한 데 이어 17일에는 전국 15%를 넘어선 마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대작 의혹’ 조영남, 전시회·공연 취소

가수 겸 화가 조영남(사진)이 ‘대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

갤러리 UHM 측은 19일 예정됐던 조영남의 전시회가 취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조영남 소속사 관계자는 “전시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이었으나 갤러리 측과 상의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1일 경기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계획된 ‘2016 조영남 빅콘서트’도 취소했다.

그러나 20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열린 ‘조영남의 봄소풍-부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운대문화회관 측은 통화에서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며 “488석 규모로 티켓은 매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국정 PD의 자연 담은 한기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미당 25주년 특집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5-18 특집 다큐멘터리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16 서울디지털포럼 개막식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0 SBS 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출발 드림팀 2(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열린TV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기화만사성)(재)	4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특집TV책(재)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블로그 공지력
2	35 우리들의 공교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365
3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55 토크생활체조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씨어월드(재) 55 파워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2016 서울디지털포럼 (새로운 관계의 법칙)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로보텍스 30 터닝메카드 W	00 MBC 이브닝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에코로 여는 세상 (나주세계자연유산지자연박람회)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공지력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판타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도농 직거래, 신 유통바람이 분다)	10 해피 투게더	10 청춘어람 특집 꿈꾸니까 청춘이다 2부	10 자기야
12	30 넷워킹 문화특선 올댓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한민족의 소리 스페셜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 생생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알고리즘) 스위스 몽프라우 마터호른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카레라이스와 구운 채소 샐러드) 11:00 세계대기행 (재)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유교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꿈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똥똥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리하니1~4 18:45 오 마이 미래 2035 (신극한직업-수직 농부)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외비선길의 만물트럭) 20:50 세계대기행 (적도의 낙원, 솔라에시 4부 확산이 놓은 땅, 토호촌) 21:30 한국기행 (씨앗을 품은 농부를 만나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파란만장 1부 죽음임으로 살자)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05 역사채널 8(재) 24:10 EBS 스페셜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9일(음 4월 13일 辛丑)

<b>子</b>	48년생 진행의 정도가 적절하니 앞서 가지 않는 것이 낫다. 60년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관할할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84년생 모두 알고 있더라도 또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54, 41	<b>午</b>	42년생 부담감을 느꼈다면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54년생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것이니 슬관적인 반복성에 속지 마라. 66년생 사소한 흠집을 주의하라. 78년생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1, 51
<b>丑</b>	49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정에 이르게 된다. 61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73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85년생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행운의 숫자 : 87, 19	<b>未</b>	43년생 미세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태이다. 55년생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67년생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9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9, 20
<b>寅</b>	50년생 지난해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62년생 의무를 다하고 나면 바람직한 국면에 처하리라. 74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86년생 능력을 과신하기는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3, 78	<b>申</b>	44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겠다. 56년생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중간에서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80년생 미묘한 차이로만 여겨 왔던 것이 큰 변수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93, 67
<b>卯</b>	51년생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63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75년생 기만하면 있으면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87년생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었던 것이 금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8, 95	<b>酉</b>	45년생 규모와 대소와 상관없이 중대한 일이다. 57년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니 여유를 가져도 된다. 69년생 유동적이나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81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 길인데 해당한다. 행운의 숫자 : 12, 28
<b>辰</b>	40년생 땅이 꺼져서 한숨 쉴 일이 생길 것이다. 52년생 직접 모색하는 것이 제일 낫다. 64년생 관련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76년생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흥통할 것이다. 88년생 실효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행운의 숫자 : 14, 34	<b>戌</b>	46년생 털어놓고 상대에 반대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58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험이 요구된다. 70년생 이면의 불씨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26, 70
<b>巳</b>	41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53년생 기쁨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65년생 이것저것 따질 게 제거 아니다. 77년생 합당한 것만을 찾기는 힘들다. 89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대비해야한다. 행운의 숫자 : 45, 37	<b>亥</b>	47년생 흠속에서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보인다. 59년생 지혜가 앞서야 할 판세이다. 71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83년생 한 번 시작하면 슬슬 풀려나갈 것 같으니, 행운의 숫자 : 18, 6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센터” ☎010-9790-8237